

KMI 국제물류위클리

2016년 4월 20일 · 제353호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선임연구위원

Contents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1. Drewry, 2016년 컨테이너선 폐선증가 전망
2. 글로벌 불황기 항만산업의 3대 트렌드
3. DP World, 조지아에 물류시설 투자 검토 중
4. 월스트리트저널, 선사간 얼라이언스 재편 예정

| 물류시장동향 |

1. 극동러시아 바니노항, 1/4분기 물동량 급격히 증가
2. UPS, 한국시장에서 서비스 강화

| 공지사항 |

1. 2016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 연장 공고
2. 제3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제6차 한-러 극동포럼) 개최





물류정책 · 사업동향

Drewry, 2016년 컨테이너선 폐선증가 전망

- Drewry의 최신 Container Insight Report에 따르면 2015년 저조했던 컨테이너선 폐선은 2015년 말부터 점차 증가세로 돌아서 2016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됨
- 2015년은 전년 대비 컨테이너 선박의 폐선이 저조하였음
 - 2015년 폐선된 컨테이너선의 선복량은 195천 TEU로, 2012~2014년 연간 폐선 선복량의 절반에 불과함
 -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폐선가격 및 중고선박에 대한 일정수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선주들이 폐선보다는 선박의 수명 연장을 더 선호하였기 때문임
 - 특히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증가한 역내 운송서비스의 결과 중고 파나마스급 선박에 대한 구매나 정기용선 수요가 증가하였음
- 그러나 Drewry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이같은 추세는 2015년 연말부터는 반전하여 선박의 폐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폐선가격은 여전히 선주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하지만, 용선비용이 급락함에 따라 선주들은 폐선시장을 통해 현재 운항하고 있지 않은 중고선박들의 잔존가치를 회수하기 시작함
 - 2015년 12월에만 15척이 폐선되었으며 이는 2015년 다른 한 분기 폐선량과 맞먹는 수준임
 - 현재 확인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들어서도 이같은 추세가 유지되어 1~2월 사이에만 19척이 폐선되었음
 - 현재 2016년 폐선될 예정인 선박 중에 12척은 선령이 20년 이하이며, 9척은 최소 4,000 TEU급 이상 선박으로 이는 향후에도 폐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을 시사하고 있음
- 폐선가격 역시 다소 상승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선박 관리사인 Zodiac Maritime은 최근 두 척의 6,000TEU 선박을 방글라데시에 처분하면서 10% 높은 가격인 LDT(Lightweight Tonnage)당 290 USD를 받았음
 - Drewry는 현재 불필요한 선복량을 줄이고자 하는 일반적인 필요성과 더불어 폐선가격 역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6~2017년의 폐선량은 2015년보다는 크게 증가하여 2012~2014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
 - 폐선의 증가가 컨테이너선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주지는 못하지만, 선박 대형화의 영향으로 동서항로에서 밀려나는 기존 대형선박이 남북항로에 투입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는 역할은 수행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음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6.4.18.

전형모 전문연구원
051-797-4683, hmjeon@kmi.re.kr



글로벌 불황기 항만산업의 3대 트렌드¹⁾

- 세계 경제 및 무역의 부진 등으로 정기선사들은 네트워크 효율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비용 최소화를 위해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형성하고 있음
 - 세계경제는 저유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신흥시장 침체, 유럽경제 부진, 2%대의 낮은 GDP 성장에 직면함
 - 또한, 세계무역도 2008년 이전 연평균 10~12%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연평균 2~3%의 성장에 그침
- 해운분야의 변화는 항만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음
 - 첫째, 초대형 선박이 중심 항로에 투입됨에 따라 지선 항로에 대형선박이 전배되는 Cascading이 확대되고 있어, 항만들은 선박 대형화에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임
 - 둘째, 정기선사간 통합으로 선사의 기항지 선택, 기항 빈도가 재편되고 있으며, 얼라이언스 구조도 큰 변화가 예상됨
 - 셋째, 정기선사들은 극단적인 비용 압력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터미널 사업자에게 낮은 가격과 보다 높은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음
- Kim Fejfer씨는 이러한 세가지 변화가 항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 항만들은 2만 TEU급 선박을 수용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기선사들이 기항지를 변경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과거 낮은 비용이 항만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제는 최저 비용을 제공해야만 사업으로 이어짐
 -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만은 고속성과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항만 운영사가 정기선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리화, 통합화, 분업화가 필요하고, 항만 인프라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함
- 이밖에 항만 운영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보다 표준화하고 터미널 운영 기술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6.4.14.

김은우 전문연구원
051-797-4772, hisgrace@kmi.re.kr

1) APMT CEO Kim Fejfer씨는 '제18회 글로벌 정기선사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항만산업의 3대 트렌드에 대해 발표함.



DP World, 조지아에 물류시설 투자 검토 중

-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인 DP World가 중국-유럽 실크로드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
 - DP World의 회장은 최근 두바이에서 개최된 투자 미팅에서 조지아 총리와의 만남을 가진 후 조지아 내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DP World는 공급 사슬 인프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시장 조사 팀을 조지아로 파견할 계획임
 - 시장 조사 팀은 해당 지역의 항만 터미널, 내륙 터미널 및 경제 특구 등에 대해 인프라 건설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 DP World 회장은 신(新)실크로드를 따라 흑해를 잇는 곳에 위치한 조지아는 카자흐스탄의 액타우(Aktau) 항만과 무역교류를 하기에 적합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언급함
 - 조지아는 지리상으로 아시아에 속하지만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흑해를 끼고 있어 동서를 잇는 관문으로 여겨짐
- 조지아와 두바이 양국간의 무역액은 2015년 총 1억2백만 달러를 기록함
- 2016년 3월 건설기업 Conti Group이 37억 달러 규모의 항만 공사 입찰권을 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항만은 조지아 흑해 연안의 아나클리아(Anaklia)에 건설될 예정임
 - 조지아 정부는 이 항만을 중국-유럽 무역 루트상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허브로 개발시킬 예정임
 - 이번 건설에 조지아 정부는 1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 2020년 혹은 2021년 완공 시 총 1억 톤의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박 입출항은 2019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아나클리아 항의 수심은 16m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 완료 시 10,000 TEU 급 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조지아의 주요 항만인 포티(Poti) 항만은 메가 선박 수용이 불가능함

자료 : www.joc.com, 2016.4.14.

신수용 전문연구원
051-797-4780, shinsy@kmi.re.kr



월스트리트저널, 선사간 얼라이언스 재편 예정

-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선사간 합종연횡으로 얼라이언스 재편이 임박했다고 보도함
 - 세계 해운업의 장기부진으로 현재 글로벌 해운사들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음
 -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Maersk Line이 2015년 4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함
 - 차이나쉬핑그룹은 기존 CSCL이 참여하던 O3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편입할지,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구성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APL은 2017년 1분기까지 G6 얼라이언스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도되었고, CMA CGM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지 않음
- FMC(Federal Maritime Commission)의 William Doyle 위원은 향후 2주내 세계의 주요 해운 얼라이언스가 대규모 개편될 것으로 발표함
- SealIntel의 Lars Jenesen 대표는 현재 4대 얼라이언스 체제가 3대 체제로 개편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소외되는 선사들도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선사 얼라이언스 현황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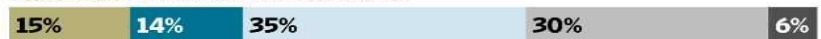
High-Seas Camaraderie

Four corporate alliances dominate the shipping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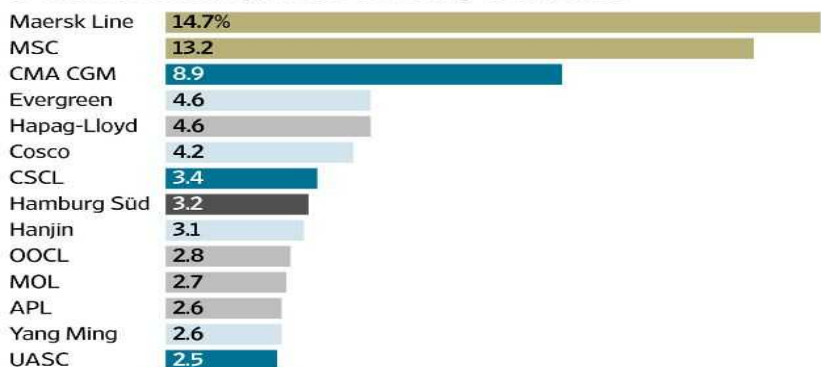
Asia-Europe market share by alliance



Asia-North America market share



...and the 14 largest companies, which make up 73.1% of the market share, almost all belong to alliances.



자료 : Alphaliner

주) 2M : Maersk, MSC / O3 : CMA CGM, CSCL, UASC / CKYHE : COSCO, K Line, Yangming, 한진해운, EVERGREEN / G6 : Hapag-Lloyd, MOL, OOCL, HMM, APL, NYK Line

자료 : schednet.com, 2016.4.15.

김주혜 연구원

051-797-4779, joohye915@kmi.re.kr



물류시장동향

극동러시아 바니노항, 1/4분기 물동량 급격히 증가

- 극동러시아 하바롭스크 변강에 위치한 바니노 상업항사²⁾에서 발표한 바니노항의 1/4분기 처리 물동량은 1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6.8%(43만 톤) 증가함
 - 바니노항에서 수출된 물동량은 약 130만 톤으로 42%(약 110만 톤) 증가함
 - 수출 품목으로는 대부분 석탄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목재 및 비철금속이 각각 약 16만 톤, 약 14만 톤으로 10%, 5% 처리물동량이 증가함
 - 수입 물동량은 30만 톤으로 전년동기 58% 증가하였으며, 이중 반토(alumina)가 약 27만 톤을 차지함
- 이번 1/4분기 물동량 집계 결과에 근거해 바니노 상업항사는 올해 바니노항의 처리물동량도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 : portnews.ru, 2016.4.11.

김은미 연구원

051-797-4778, useal004@kmi.re.kr

UPS, 한국시장에서 서비스 강화

- 국제특송회사 UPS는 한국기업의 수출입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 내 13개 주요 도시의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힘
 - 대상 도시는 천안, 아산, 인천, 용인, 안성, 화성, 오산, 평택, 창원, 하남, 부산 산업공단, 서울 및 김포로 전국적인 규모임
 - 해당 도시에서는 물품 접수 마감시간이 대폭 연장돼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중요 지역으로 최대 1일까지 화물 배송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또한, 이들 도시에서는 물품 접수 마감시간이 최대 5시간 연장될 것임
- UPS 코리아 나진기 사장은 한국시장이 확대되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비스 강화가 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등 UPS의 전문성과 결합해 물류서비스에 대한 한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UPS 코리아는 상암 서비스센터의 개설과 접수시간 연장, 배송시간의 단축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또한, UPS는 2015년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23,000개의 새로운 우편코드를 추가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아시아 시장 전역에서 UPS Worldwide Express® 서비스를 확장하고, 따라서 고객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자료 : www.gscintell.com, 2016.4.12.

김민경 연구원

051-797-4777, mkkim421@kmi.re.kr

2) 바니노 상업항사의 러시아어 명칭은 다음과 같음. OAO «Ванинский морской торговый порт». 바니노 상업항사는 개방형 주식회사(Public Joint Stock Company)로 바니노항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임



2016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연장 공고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신청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비물류기업 포함)
 -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지원대상사업 예시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 내용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조사비용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지원 비율	중소·중견기업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대기업	단독신청 시	최대 40%	최대 20%	최대 5천만원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	최대 70%	최대 50%	최대 1억원

- 접수기간 : 2016. 4. 1(금) 09:00 ~ 4. 29(금) 18:0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 신청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5호
(☎ 044-200-5726)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 선정 방법 및 절차

- 선정기준 : 서류심사를 거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선정결과 발표 : 2016년 5월15일(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의 양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26)로 문의하시기 바람



제3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 (제6차 한-러 극동포럼) 개최

제3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제6차 한-러 극동포럼) 및 B2B 상담회가 6월 7-9일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정책 토론회 및 B2B 참가희망 기업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 4월 25일(월)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차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정책토론회 개요

- 시 간: 2016. 6. 8(수) 08:45 - 18:00
- 장 소: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 다이아몬드 A홀
- 주 최: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KMI
- 주 관: 한·러공동연구센터 / KOTRA
- * 자세한 세부 프로그램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Made with Russia’ B2B 상담회

- 시 간: 2016. 6. 8(수) 10:50 - 18:00
- * 본행사(다이아몬드 A홀)와 병행해서 진행
- 장 소: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 다이아몬드 B홀
- 주 최: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 주 관: KOTRA / KMI
- 대상기업: 수산, 물류, 의료, 기타 전반 분야 등 극동 러시아 진출 희망 기업

● 포럼 및 B2B 참여 문의 및 접수

- 포럼 및 B2B 접수 방법: 첨부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송부
- * 최종 선정여부 추후 통보 예정
- 문의 및 접수처
 - ※ KOTRA 중아CIS팀 김택영 대리(02-3470-3297/ rowan@kotra.or.kr)
 - ※ KMI 국제물류연구실 이하림 연구원 (053-797-4758/ harimyi@kmi.re.kr)